

우리들의 친구 다람이

- 등장인물 : 다람이(주인공)
- 꿀순이(다람이의 친구)
- 몽이(다람이의 친구)
- 의사(다람이를 치료하는 의사-기린)
- 선생님(다람이의 유치원 선생님-토끼)
- 엄마(다람이의 엄마)



*종이인형 도안은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.
<http://www.kclf.org/HTML/BUSINESS/business1551.aspx>

줄거리

어느 날 백혈병에 걸린 다람이는 병원에 입원한다.
의사선생님을 통해 다람이는 백혈병이 몸속에 들어와 착한 세포를 괴롭히는 나쁜 세포들 때문에 생긴 병이라는 것을 알게된다.
그리고 다시 건강해지기 위해 쓴 약과 독한 주사를 맞는 것을 견뎌내야겠다고 다짐한다.
그런 다람이를 응원하는 유치원 친구들.
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머리가 빠지고 얼굴이 부은 다람이를 친구들은 여전히 아껴준다,
다람이가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친구들의 따뜻한 응원을 통해 다람이는 더 많이 힘을 낸다.

#1 유치원 교실



(놀고 있는 아이들, 그때 선생님이 등장)

꿀순이 : 선생님.

선생님 : (다정하게) 왜?

꿀순이 : 다람이가 안 와요.

선생님 : 음, 다람이는 지금 병원에 있어.

몽 이 : (놀라서) 왜요?

선생님 : 다람이는 백혈병을 앓고 있단다.

꿀순이 : 백혈병요? 그게 뭐예요?

선생님 : 백혈병은 우리 몸속에 있는 착한 세포들을 못살게 구는 아주 나쁜 세포들이 생기는 병이야. 이 나쁜 세포들의 힘이 너무 세서 백혈병에 걸리면 많이 아프단다.

몽 이 : (걱정) 그럼 다람이는 이제 우리하고 못 놀아요?

선생님 : 아니야. 다람이가 치료를 잘 받으면 나쁜 세포들이 모두 사라진단다.
 그러면 다시 건강해질 거야.
 꿀순이 : 선생님. 그러면 우리 다람이 힘내라고 편지 써요.
 몽 이 : 나는 다람이를 응원하는 그림을 그려야지.
 선생님 : (흐뭇) 그래, 너희들 모두가 응원해주면 다람이는 더 힘이 날거야.

#2 병원



다람이 : (걱정) 엄마, 나 친구들 만나러 유치원에 가고 싶어요.
 엄 마 : 다람아, 아직은 안돼.
 다람이 : 그럼 언제 갈 수 있어요?
 엄 마 : 선생님 오시면 물어보자.



(의사 선생님 등장)

다람이 : 어, 선생님이다. 선생님. 저 언제 다시 유치원에 갈 수 있어요?
 의 사 : 다람아. 백혈병은 치료가 좀 오래 걸려. 하지만 꼭 나을거야.
 다람이 : (울먹) 거짓말, 나 머리카락도 다 빠졌단 말이에요.
 의 사 : 그건 다람이 몸 안에 있는 나쁜 세포를 없애기 위해 아주 독한 약을 써서 그래.
 치료 끝나면 머리카락이 다시 쑥쑥 자랄 거야.
 다람이 : (조금 안심) 정말이죠. 그러면 혹시 주사도 맞아야 해요. 다람이는 주사 싫은데.
 의 사 : (머리 쓰다듬으며) 다람아, 씹씹하게 주사도 맞아야지. 쓴 약도 용감하게 먹어야 돼.
 그래야 건강해지지. 선생님은 다람이가 잘할 거라고 생각해. 그렇지?
 다람이 : (조금 작게) 네.

(의사 선생님 퇴장)

다람이 : 아. 친구들 보고 싶다. 꿀순이는 지금 뭐하고 있을까?
 엄 마 : 맞아. 중요한 걸 엄마가 깜빡했네.
 다람이 : 중요한 거?
 엄 마 : (응원편지와 그림 보여주며) 짠, 이거봐. 유치원 친구들이 너한테 보내준거야.
 다람이 : 우와. 꿀순이가 쓴 편지네. 몽이가 그린 그림도 있고. 엄마, 나보고 애들이 힘내래.
 엄 마 : 그래, 다람아. 힘내서 꼭 나을거지? 치료도 잘 받고.
 다람이 : 응. 힘낼거야. 약도 잘 먹고, 주사도 잘 맞고, 그래서 꼭 나을거야.

#3 유치원 교실



선생님 : 애들아. 좋은 소식이 있다.

아이들 : 뭔데요?

선생님 : 다람이가 드디어 오늘 너희들을 보러 온단다.

꿀순이 : 우와, 정말요?

선생님 : 그런데 애들아, 다람이 모습이 조금은 다를 거야.
모자를 썼을거고, 얼굴도 좀 부어있을거야.

몽 이 : (궁금) 왜요?

선생님 : 다람인 병과 싸우느라 독한 약을 써야했거든. 그 약을 쓰면 머리카락이 빠진단다.
그래서 모자를 쓰는 거야.

꿀순이 : 그럼 다람이는 늘 모자를 쓰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?

선생님 : 아니야. 치료가 끝나면 머리카락은 다시 자랄거야. 그때는 모자가 필요 없겠지.

몽 이 : 다행이다. 선생님. 누가 다람이 모자 썼다고 놀리면 제가 혼내 줄게요.

꿀순이 : 선생님, 그런데 다람이는 어디 있어요?

선생님 : 너희들이 힘차게 환영의 박수를 쳐주면 다람이가 짹하고 나타날거야.

몽 이 : 애들아, 박수..

(아이들과 선생님 힘차게 박수치면, 모자와 마스크 쓰고 등장하는 다람이)

다람이 : 고마워. 이렇게 반겨줘서. 사실 너희들이 날 이상하다고 놀리면 어떡하나 걱정했어.

몽 이 : 누가 널 놀리면 내가 가만히 안 있을거야.

다람이 : 이렇게 머리도 빠지고, 얼굴도 부풀었는데.

꿀순이 : 지금은 치료를 받으니까 그런 거라며. 그러니까 힘내서 빨리 나으면 되잖아.

다람이 : 고마워.

선생님 : 그래, 다람아. 우리 모두 응원할 테니까 빨리빨리 건강해지는 거야. 알겠지?

다람이 : 네, 선생님. 빨리빨리 건강해질게요.

몽 이 : 다 나으면 매일매일 유치원에 올 수 있는 거지?

다람이 : 응.

몽 이 : 내가 너 완전히 건강해질 때까지 매일매일 응원편지랑 그림 보내줄게.

꿀순이 : 몽이, 너. 다람이 좋아하는구나.

몽 이 : (웃으며) 그럼, 우린 친구잖아. 너는 응원편지 안 쓸거야?

꿀순이 : 나도 쓸거다. 너보다 더 많이. 그래야 우리 다람이 더 빨리 건강해지지.

다람이 : 고맙다. 애들아.

선생님 : 다람아. 힘내. 이렇게 친구들이 모두 널 응원하니까. 알았지.

다람이 : 네, 선생님.

우리들의 친구 다람이



- 끝 -